



교훈: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1

• 발행인:황성길 • 편집인:남기진 • 사무국장:유 진 • 편집위원:정인재, 김진걸, 신대수 • 발행처:계성산우회보사 •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59-5 계성빌딩 811호 • 전화:(053)255-3900 FAX(053)256-4942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isung.or.kr • 인쇄처:민기획 ☎(053)256-8534

제7차 총동창산우회 · 재경산우회 합동 등반대회 경북 봉화군 청량산(870m)에서

오는 10월 22일(일)에 실시되는 제 7차 총동창산우회와 재경산우회의 합동 등반이 경북 봉화군 명호면의 청량산(870m)에서 실시된다. 재경산우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모교 개교10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해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이번에 찾아가는 청량산 처럼 안팎으로 절경인 산은 드물뿐 아니라 희귀한 존재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량산은 한번 오르고 나면 이땅의 어지간한 산악 풍경으로는 성에 차기가 어려울 것이다.

청량산은 옛기록에 의하면 6·6봉, 8대, 3굴을 가진 바위산으로 되어 있다.

이 산의 중심에 앉은 청량산에서 바라 보이는 9개 봉우리와 그 바깥쪽 3개 봉우리 합해 12개봉을 사람들은 “청량산 6·6봉”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이황의 다음 시에서 유래 되었다고 한다.

“청량산 6·6봉을 아
는 이는 나와 백구(白
鷗) / 백구야 날 속
이라 못 믿
을

손 도화(桃花)로다 / 도화야 물따
라 오지마라 어주자(魚舟子)알까
하노라“

산지사방으로 포장도로가 난 지금에도 어딘가 오지스런 분위기가 풍기는 봉화에서도 남동쪽, 백두대간에서 낙동정맥이 갈라져 간 지점 아래의 우뚝하고 깊은 곳에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라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이기도 하다. 그 만큼 이 산의 경치가 뛰어났기 때문이다.

신라 명필 김생을 비롯하여 최치원, 이황, 주세붕 등 역사에 이름이 전하는 많은 인물들이 이 산을 탐했다. 기암봉들이 모여 미로 같은 산릉과 계곡을 이룬 한편 입구만 틀어 막으면 피신처로는 적격이었다. 사방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암봉이며 하나 같이 수직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그 층암절벽 사이로 교묘하게 진이 있어 방패를 가능하게 한다.

암자자리와 6·6봉
정상, 그리고 봉
우리들 중턱
의 8대는 뛰어

난 조망처가 된다.

해발 870m에 도립공원 면적이 고작 48.7km로 북한산 국립공원의 절반이며 한손 안에 들 것같은 좁은 공간안에 무수한 암봉들이 몸을 비비대며 들어앉아 있다.

이 곳에는 내청량사(유리보전)와 외청량사(응진전), 퇴계선생의 서당인 오산당(청량전사)과 4개의 약수터, 12개의 동굴이 있고 이 동굴 속에는 총명수, 감로수, 원효샘 같은 이름의 샘이 있다.

이번 산행의 백미는 의상봉 정상에 올라 낙동강 줄기를 감싸안은 청량산 줄기가 치맛자락처럼 펼쳐져 있는 것을 조망하는 것이고 정상 남쪽의 축육봉(845m)에서 바라보는 절경 또한 일품이다. 또한 최치원의 유적지로 알려진 고문대와 명필 김생이 서도를 딱던 김생굴과 공민왕이 피난 와서 쌓았다는 청량산성도 볼거리다.

등산 코스는 청량사에서 봉산봉까지의 3시간 코스부터 입석에서 경일봉, 보산봉, 탁필봉, 청량산 정상에서 청량사로 내려오는 말발굽형이라 불리는 6시간 소요되는 코스까지 다양한 등산로가 있다.

지리산 삼신봉(1,285m)에서 제80차 정기산행을 마치고

지난 9월3일(일) 아주 화창한 날씨속에 지리산 삼신봉에서 제80차 정기산행을 무사히 마무리 하였다.

금번 산행은 총 3대의 버스로 나뉘어 이동하였는데,지리산 청학동 매표소에서 시작하여 삼신봉과 상불재 및 불일폭포를

다.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39회:서정원 ▷44회:채근수 ▷48회:손성구, 류청웅 ▷49회:노균, 박노권, 최준, 이충호 부부▷50회:강의경부부, 김종수, 김일득 ▷51회:황성길, 박동고, 장무웅A, 허종철, 권영호부부, 김완식부부, 허노원, 장무웅



▲ 삼신봉 정상에서 (62회 산우회원)

거쳐 쌍계사로 하산하는 A코스 와,삼신봉과 상불재를 거쳐 삼성궁으로 하산하는 B코스,청학동에서 상불재를 거쳐 쌍계사로 하산하는 C코스등. 총 3개의 구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특히 산행하기에 더 없이 좋은 날씨에 삼신봉 정상에서 지리산 천왕봉과 세석평전을 비롯한 주능선과 저 멀리 노고단까지 조망하고 지리산 최대의 폭포인 60m 불일폭포의 음이온 정기까지 받았으니 아주 뜻 깊은 산행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A코스를 선택한 회원은 하산하면서 지리산 맑은 계곡에 잠시 세족(洗足)하는 즐거움까지 얻었다. 단지 코스가 예상밖으로 조금 길어 피로감을 느끼는 회원들이 있었으나 아무런 사고도 없이 잘 마무리 되었

B, 이동희,남기진, 김명숙 ▷52회:김신웅 ▷55회:서상택부부, 정인재 ▷56회:김정길 ▷58회:곽일섭, 김영호, 이무영, 김상진 ▷60회:장용현, 박종환, 김인중 부부, 이인직, 백만설, 김경동, 정원호, 박영태, 주이광 ▷61회:이승엽부부,석재호부부,임유상, 김성수,남인길,성연복 ▷62회:임정래, 우경수, 권호춘, 이종석, 김태웅부부, 방인철 ▷63회:이상준, 김광주, 장종국, 이 탁, 김형국, 임진수, 이세탁 ▷65회:박영태, 김영문, 서태교, 박태달, 김진걸 ▷67회:송준석 ▷69회:김도균부부, 우종식, 김창수 ▷70회:박준석, 박상훈, 신대수 ▷71회:박범준, 박용상, 송건호, 장동현, 정만현, 황덕문, 석준수, 노규영 ▷75회:오창현, 석수겸, 우희경, 도기창 (이상 총 92명)

▲ 청량사와 청량사 왼쪽의 우뚝 솟은 암봉



HOTEL AIRPORT

호텔에어포트

http://www.htlair.com

■ 넓은 주차장, 품격있는 결혼식, 돌잔치, 회갑연, 기타행사
■ 웨딩, 연회 예약문의 : 053)260-0306~7

대표 서 은 수 (55회)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400-1(대구국제공항 내) / TEL : (053) 260-0001

산행기

청학동에서 삼신봉을 거쳐 쌍계사까지

기다리던 산우회보가 왔다. wife는 벌써부터 가느냐 안가느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 때면 갈 때마다 부부동반 참석 동기가 없다고 투덜댄다.

박 회장에게 물어보니 15명 정도 참가할 예정이며 부부동반 회원은 거의 없는 것 같았다.

wife는 여성회원이 많은 등산 모임으로 가버려서 결국 우리 부부는 하루 이산가족이 된 셈이었다.

9월 4일 아침 6시 50분 가벼운 등산차림으로 점심을 챙겨 넣은 배낭을 메고 집 근처 home plus앞으로 나갔다. 이미 박 영태 회장이 먼저 와 있었다. 둘이서 담소하다 보니 7시 20분경 2호차가 도착하여 승차를 하였다. 목례로서 간단한 인사를 하고 차내를 둘러보니 빈자리가 많았다.

나중에 신대수(70회) 후배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각 기별 참가예정인원보다 적게 참석한 결과였다. 물론 나도 좀 미안한 느낌이 들었다. 왜냐하면 wife가 참석한다고 해놓고 다른 데로 새버렸기 때문이다.

잠을 자려고 눈을 지그시 감고 의자에 기대어 누워 잠을 청했으나 잠이 오질 않았다.

잠시 후 항상 우리에게 노래와 Y談으로 즐거움과 수명을 연장해주시는 정인재(55회) 선배님의 노래지도 시간이 왔다. 먼저 우리는 박수를 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하하 소리 내어 큰 웃음을 한참동안 웃어 수명을 연장한 뒤 노래지도 받은 후 선배님의 재미있는 Y담이 시작되었다. 명품(名品)series등 여러 개 중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것은 나이에 따라 부부 잡자리 변화과정이었다. 40대는 서로 천정보고 자고, 50대는 서로 돌아누워 자고, 60대는 각방 쓰고, 70대 이상은 어디에서 자는지 모른다는 얘기. Y담을 들으면서 우리는 휴게소에 이르렀다.

휴게소에서 아침식사를 못하신 동문들께서 식사를 한 후 다시 지리산 청학동을 향하여 달렸다. 잠시 후 늘 수고하시는 남기진(51회) 부회장님의 산행코스

및 소요시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은 뒤 지루하게 달려 10시 20경에 청학동 도인촌 부근 주차장에 도착했다. 여기서 우리는 간단한 준비운동 후 10시 35분경에 삼신봉을 향하여 등산하기 시작했다. 올라가면서 길 주변의 상가를 보니 아직 오전이라서 그런지 관광객이 거의 없었다.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매표소 입구에 다다랐다.

매표소에는 청년 두 사람이 지키고 있었다. 9월 정기 국회에서 법이 통과 되면 국립공원에 입장료 없이 입장할 수 있다고 한마디씩 던지고는 뒤에 오는 총무님에게 계산하라고 하면서 우리는 매표소를 지나 모두 총총히 삼신봉을 향하여 올라갔다. 하늘을 찌를 듯이 크고 쪽쪽 뻗은 원시림이 골을 가득 메운 계곡 길을 따라 한 20여분 올라갔을 때 우리 기수의 다람쥐 회원(인직, 종환) 두 명 중 종환이가 뒤에 처진 동기들이 올라올 때까지 좀 쉬었다 가자고 한다. 잠시 후 출발할 때 화장실 간 김인중 동기 부부 외에는 모두 모였다.

이 때 종환이 동기가 냉동실에 얼려서 갖고 온 먹음직스런 꽃감을 내놓았다. 이 친구는 매표 등산 때마다 냉동 꽃감은 잊지 않고 갖고 오는 친구인데, 적당한 별명을 하나 지어줄까 생각하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옆에 앉아서 쉬고 있던 장용현 회장이 꽃감영감이라고 그럴듯한 별명을 하나 내뱉었다. 모두 박장대소(拍掌大笑)를 하면서 옛말에 “호랑이 왔다 해도 울음을 안 그치던 애가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꽃감소리에 울음을 뚝~욱 그친다. ??는 얘기를 하며 우리는 무시무시한 꽃감 영감이 가져다 준 꽃감을 맛있게 먹은 후 다시 산행을 시작했다. 도중에 한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다른 등산 팀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웅달쌈까지 올라왔다.

장용현 동기와 나는 샘물을 한 바가지씩 마시면서 어, 산삼냄새나는 물 좀 마셔라! 며 주이광 동기에게 바가지를 넘겨주고는 다시 삼신봉을 향하여 전진했



▲ 지리산 삼신봉 정상에서

다. 얼마나 걸었을까 10시 35분에 출발하여 1시간 20여분 만에 (12시경) 삼신봉에 올랐다.

정상석(頂上石)에는 三神峰(1,284m)로 새겨져 있었다. 항상 그렇지만 정상에서의 시원한 바람을 몸소 느끼면서 사면팔방으로 확 트인 조망을 가슴 가득 안을 수 있는 기분에 땀 흘려 산을 오르지 않았습니까? 날씨가 너무나도 좋고 청명하여 천왕봉, 제석봉, 촛대봉, 연화봉 등의 연봉들을 멋지게 조망할 수 있었다. 우리 동기들은 정상석을 배경으로 독사진 및 단체사진을 한 장씩 찍은 후 또다시 천왕봉을 뒷 배경으로 하여 단체사진을 찍었다.

우리는 멋진 지리산 연봉들을 감상하느라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삼신봉에서 30여분간이나 머무른 후 이곳보다 좀 더 높은 내삼신봉을 향해 출발했다. 한 20여분 걸어가니 정상석에 三神山頂(1354.7m)이라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이곳에서도 기념촬영을 한 후 점심식사 장소를 찾으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우리의 총무 주이광 동기는

다리에 이상이 있어 민폐 끼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먼저 출발하였다. 한 10여분쯤 걸어가니 먼저 출발한 총무가 나무 그늘 아늑한 곳을 찾아 점심식사 장소를 만들어 놓았다.

점심시간! 산행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참가한 열 명의 회원 중 일곱 명이 모였다. 김인중 부부 및 김경동 박사가 보이지 않았다. 김박사는 아마 사진 촬영하느라 늦을 것이고, 김인중 부부는 둘이서 오붓하게 점심식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산상 뷔페를 차렸다.

우리는 진수성찬에 종환동기가 갖고 온 거시기에 좋다는 복분자술을 한 잔씩 갈라 마시면서 즐거운 이야기 꽃을 피웠다. 점심식사를 마친 후 우리 일행은 다시 목적지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점심시간을 오래 가질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오후 5시에 도착하여 하산주를 마신 후 6시에 출발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내삼신봉에서 상불재까지는 내리막길이 계속되리라 생각했는데 꽤 심한 오르막길도 있었다. 1시간 정도 걸어 도착한 곳은 집

채보다도 큰 바위 덩어리였다.

이 바위에 오르느냐 아니면 우회하느냐 모두들 갈등이 생겼다. 그 때 다람쥐 동기 두 사람(인직, 종환)이 바위덩어리로 오르기 시작했다. 나머지 일행은 바위 밑둥치 재에서 쉬었다.

여기서 우리는 김 박사를 만났다. 늦은 이유는 촬영 때문이 아니라 전날 잠을 못잔 데에다 무리한 산행 때문이란단다. 쉬면서 사과를 깎아 목을 축인 뒤 우회로를 타고 내려갔다. 나중에 알았지만 이 바위가 바로 지도상의 쇄통바위였다. 여러 개의 큰 바위가 붙어 가운데 길쭉한 구멍이 하늘을 뚫고 열려있는 모양이다.

한 참을 걸어 갈림길이 있는 봉우리 하나를 넘어 긴 산죽터널을 내려가니 상불재 삼거리가 나온다. 여기서 오른쪽은 불일폭포(3.1km), 왼쪽은 청학동(2.5km) 방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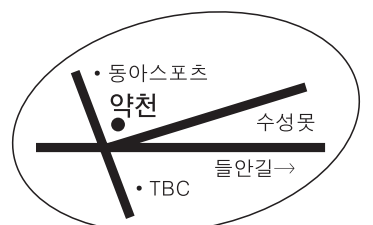
우리는 불일폭포방향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산 길은 급경사였다. 내리막길 도중에 우리 일행은 잠시 쉬면서 사과 몇 개로 목을 축였다. 준비해온 물은 이미 바닥이 났다. <4면 계속>



YACK CHEON
샤브샤브전문점

代表

金 聖 洙 (61회)



KOREAN RESTAURANT YACK CHEON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614번지

TEL : 053-766-4645, 2083

FAX : 053-765-2093

H·P : 011-9569-4645

산우회 탐방

계성 58회 산우회

58회 산우회는 1991년에 결성이 되어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어오고 있다. 회원은 약50명에 이르며 매년 2회 정도 관광버스로 전국 명산을 산행하고 있다.

금년 4월에는 남해 사랑도를 다녀오기도 했다.

역시 나이가 들어 갈수록 등산이 몸에 좋다고 생각이 드는지 많은 회원들이 동참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회원 확보와 더 좋은 산행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회장:김진해 ▷총무:이무영 ▷등반대장:김은홍



회 장
김 진 해



총 무
이 무 영



▲ 1994년 8월 해인사에서

추억의 앨범



1988년 6월 5일~7일 2박3일간 당시 52회 산우회장인 김종완 외 34명이 부부동반으로 제주도 한라산을 등반했다.

윗새오름 대피소를 지나 정상으로 향하던 중 철쭉이 피어있는 평원에서 촬영을 했는데 뒷쪽에 보이는 산이 한라산 정상이다.

왼쪽부터 서정환, (고)윤태한, 김재태, 이종덕, 김복영, 차경열, 최연호 앞자리 오른쪽 첫째가 정하룡이다.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때 제주도에 철쭉이 만개하여 온 산이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장관이었다.

글 · 정하룡(52회)

기별동정

◆ 제51회

9월 24일 단양 옥순봉으로 산행을 다녀왔다.

◆ 제52회

9월 24일 범물동 진밭골에서 청계사까지 4시간의 짧은 산행을 마치고 하산주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 제55회

9월 10일 무주 적상산에서 39명(부인 포함)의 회원이 산행을 한후 대구로 오던 길에 함양 삼림속에 잠시 들러 숲을 거닐며 산림욕을 즐겼다.

이날 서은수 회원(에어포트호텔 대표)의 찬조로 저녁식사는 거창에서 유명한

갈비식당에 들러 갈비찜으로 포식을 하였다.

◆ 제61회

10월 1일 팔공산 서봉으로 산행을 할 예정이다.

◆ 제62회

9월 17일 박병렬 회원이 부친상을 당하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제63회

9월 24일 우륵 최정산으로 산행을 하였다.

◆ 제71회

9월 16일~17일 1박2일로 가조에 있는 황득문 회원의 별장에서 15명의 회원이 계곡에서 물고기도 잡고 저녁에는 삼겹살과 소주로 파티를 열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웃으면 건강해요

»»야한 여자가 싫어하는 운동선수

1. 100m달리기 선수 : 10초도 안돼서 끝난다. 허무하다
2. 축구선수 : 90분동안 문전만 땀뿜다 겨우 한두번 들어온다. 지루하다.
3. 골프선수 : 겨우 18번 들어오면서 초보는 100번 넘게, 프로도 70번 가까이 허우적거리며 왔다갔다 한다. 감질난다.
4.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선수 : 상체만 드듬고 허리 아래는 신경도 안쓴다. 짜증난다.
5. 야구선수 : 나무나 알루미늄 방망이를 사용한다. 비겁하다.
6. 유도선수 : 보기만하면 자빠뜨리고 누르기 들어온다. 너무 피곤하다

»»야한 여자가 좋아하는 운동선수

1. 마라톤 선수 : 한번 시작하면 2시간 이상은 보장한다. 감동적이다.
2. 당구선수 : 넣는데는 귀신이다. 놀랍다.
3. 체조선수 : 허리가 유연하고 자세가 다양하다. 항상 새롭다.
4. 농구선수 : 덩크슛 할 때는 온 몸이 떨린다. 짜릿하다.
5. 양궁, 사격선수 : 내가 원하는 장소를 정확히 맞춘다. 믿는다.
6. 권투선수 : 길게, 짧게, 위로, 아래로 결국은 다운까지 시킨다. 무아지경이다.

Total System Engineering 전문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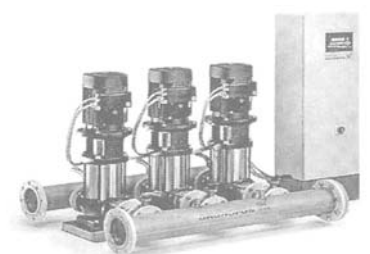
(주) 지-포 스
G·FORCE Ltd. Co.,

대표이사 김 진 걸 (65회)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산업용재관 19동 18호 / TEL : (053)604-2361~2 / FAX : (053)604-2363
H.P : 016-510-1193 / E-mail : gforce-1@hanmail.net

- 세계 제일의 품질과 에너지 절약을 지향하는 한국 그린포스 펌프 (주)대구대리점
- VALMAC 영남총판
- BCT 대구지역 총판 대리점

부스터펌프시스템(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 컨트롤 밸브, 자동밸브, 공장자동화 시스템
- 신개념의 일체형 흡수식 냉온수 유니트(BCT)
 - 건물 냉, 난방시스템(에너지 절감형)
- Automatic Filto System (Amiad, Filto Mat)

<2면 연속>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니 길 우측 저쪽 편에 조그마한 폭포가 나타났다. 그 곳에는 여러 명의 남녀 등산객들이 이미 자리를 잡아 발을 담그고 시원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우리는 좀 더 내려가서 시원한 물에 발 담그고 휴식하기로 하고 계속 내려갔다. 하산 길과 계곡이 마주치는 지점에서 옷통을 벗어 던지고 물을 뒤집어 쓴 후, 잠시 담소하며 쉬다가 시간에 쫓겨 다시 하산하기 시작했다. 상불재에서 불일폭포까지 3.1km의 돌길을 걷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지루한 것인지는 정말 처음 느껴본 일이다. 아마 빨리 도착하여 하산주 한 잔 한 후 출발시간에 맞추기 위한 조급증 때문이었을 게다. 한 잠을 걸어 올타리가 빙 둘러 쳐져있고 열려진 사립문밖으로 나오니 불일폭포 0.3km, 쌍계사 2km라는 이정표가 눈에 띄었다.

우리는 예정된 도착시간에 쫓겼지만 하산주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왕복 600m의 불일폭포 관광을 결정했다. 조금 걸어 들어가니 폭포의 물 떨어지는 소리가 어렴풋하게 들려오고, 왼쪽으로 눈길을 돌리니 불일암자가 보였으며 가파른 벼랑 옆으로 난 길을 따라가니, 그 옛날 폭포아래 용소에 살 던 용이 승천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던 중 꼬리를 살짝 쳐서 백학봉과 청학봉을 만들고 그 사이로 물이 흘러 폭포가 되었다는 높이 60여m 지리산 최대의 불일폭포가 나타났다.

우리는 불일폭포의 우렁찬 물 떨어지는 소리에 매료되어 한동안 냇을 잃고 있다가 누군가 기념촬영하자는 소리에 그 제서야 모두 포즈를 취하느라 법석을 떨었다. 기념촬영을 마치고 불일폭포에서 되돌아 나와 조금 내려오니까 산죽지붕의 집 한 채와 돌들을 겹겹이 쌓아올린 소매탕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근처에서 야영을 할 수 있다는 뜻밖도 세워져 있다. 이곳에서 쌍계사까지는 2km정도, 우리는 빠른 걸음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가뜰이나 정해진 시간에 도착할 수 없는데 한 친구가 이대로 버스를

타면 땀 냄새 때문에 옆 사람에게 폐를 끼치니 씻은 뒤 옷 갈아입고 가자고 했다.

우리들은 내려가다 계곡의 마지막 다리 부근에서 팬티 바람으로 몸을 씻고 옷을 갈아 입으니 날아 같듯 한 기분이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 하산 길 도중에 있다는 최치원이 학을 불러 타고 노닐었다는 전설을 지닌 환학대(喚鶴臺)며, 여성의 하체를 닮았다고 하는 국사암의 사천왕수(四天王樹)도 못보고, 길을 재촉하여 쌍계사 경내에 들어섰다. 절 이곳저곳을 둘러볼 시간이 없어 대웅전 앞에서 조롱박으로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신 후 잔걸음으로 쌍계사를 빠져나와 6시 20분경에 쌍계사 주차장에 이르니, 불일폭포에서 시원한 맥주 생각 난다며 먼저 내려 간 장용현 친구며 부부 동반한 김인중 친구가 이미 도착하여 인도에 앉아서 시원한 캔 맥주를 들이키고 있었다. 출발시간 오후 6시 정각, 이미 20분이 경과하였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하산주 한 사발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출발 할 수가 없어서 일을 맡아 수고하는 후배님에게 6시 50분까지만 하산주 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는 후배님이 일러 준 동동주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주인아줌마에게 은어하며 도토리묵을 안주하여 한 사발 쪽 들이키니 기가 막히게 시~원하고 술~술 잘 넘어 갔다. 하산주가 정말 이렇게 맛있는 것은 내가 등산한 이래로 처음 느껴 본 일이다.

우리들은 모두 낭만의 마지막 잔을 다 함께 마시고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버스 쪽으로 옮겼다. 주차장에는 이미 버스 한 대는 떠나버리고 한 대만 남겨 놓았다. 마지막 버스에는 하산주 좋아하는 우리 동기들과 후배님 몇 분이 남아 있었을 뿐이었다. 도합 16명. 우리는 오면서 하산주가 부족한 탓인지 버스 안에서 낭만의 두 번째 잔을 기분 좋게 기울이면서 선후배간 못 다한 얘기를 하면서 대구까지 무사히 도착하였다.

10월 22일 다음 산행을 기약하면서 再見!(zaijian!)

글 · 백만설 (60회)

2006년 9월 총동창산우회 찬조 및 협찬 내역

계성산우회의 발전 및 행사 지원에 협찬 및 찬조해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성산우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회원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찬조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회 10만원 ▷65회 동기회 10만원

▶임원 찬조금 내역

▷서정원(39회) 20만원 ▷김덕수(50회) 30만원 ▷황성길(51회) 200만원 ▷윤응균(51회) 50만원 ▷최인식(53회) 30만원 ▷김우영(55회) 30만원 ▷강승훈(56회) 30만원 ▷김익환(56회) 10만원 ▷장영진(57회) 100만원 ▷박영태(60회) 30만원 ▷서태교(65회) 30만원 ▷김우철(70회) 30만원

▶행사시 찬조내역

▷이종열(55회) · 박수향(55회) 시산제 및 8월 행사지원 ▷박영태(60회) 50만원 ▷60회 동기회 10만원 ▷61회 동기회 10만원 ▷62회 동기회 10만원 ▷63회 동기

▶광고협찬내역

(2005년 12월 31일~2006년 9월 27일)
▷김재길(51회) 10만원 ▷51회 동기회 10만원 ▷52회 동기회 10만원 ▷황인호(52회) 15만원 ▷은종철(52회) · 양병일(52회) 10만원 ▷서은수(55회) 60만원 ▷이종열(55회) 10만원 ▷이정우(60회) 20만원 ▷정수영(61회) 45만원 ▷김성수(61회) 20만원 ▷석재호(61회) 15만원 ▷장경호(63회) 10만원 ▷조홍채(64회) 50만원 ▷65회 동기회(정재원, 권경훈, 구병원, 안경석, 김진걸) 50만원 ▷반용석(69회) 10만원 ▷정성대(73회) 20만원 ▷우희경(75회) 10만원

<제7차 총동창산우회 · 재경산우회 합동 등반>

▶일 시 : 2006년 10월 22일(일) 08:00(우천 관계 없음)

▶장 소 : 모교 정문 앞

▶회 비 : 1만5천원(가족1만원)

▶준비물 : 중식, 방풍자켓, 식수외 ▶문 의 : 신대수(70회) H.P : 011-251-9613

※10월 산행 참석자 명단은 버스예약관계로 10월 13일(금)까지 필히 통보바랍니다.

<정기산행 무단 불참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

근래 정기산행시 산행 참가 의사를 밝힌 후 무단 불참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여러가지 직 ·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는 버스 과잉 임차등의 문제와,산행전 필수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상해보험 (1천원/인)으로 인해 산우회 재정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9월에는 120여명이 참가 신청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93명이 참석하여 버스 한대의 임차료인 50만원과 약 30여명의 상해보험인 3만원이 낭비 되었습니다. 열악한 우리 산우회의 재정으로 볼때 이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총동창산우회 집행부에서는 기별 각 회장단에게 다음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각 기별 회장단은 정기산행 참석자 명단 통보시 참석 인원내 해당하는 회비를 先 입금하는 것을 적극 권유한다.
- 신청자와 실제 참석자 인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회비는 기별 회장단에 보충 납입한다.

<2006년분 기별산우회비 납부안내>

산우회비는 각 기수별 연간 10만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비는 산우회보 인쇄, 발송 및 산우회의 각종 행사시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아직 납부치 않으신 기수는 빠른 시일 내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금계좌 : 대구은행 247-07-000915-8 (예금주 : 신대수)

<산우회보 전자우편(e-mail) 신청바랍니다>

매월 정기발행되는 산우회보는 여러 회원님들의 가정에 발송 되기까지 수고와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우편발송 방식과 병행하여 희망자에 한해 산우회보를 전자신문의 형태로 e-메일 발송코자 합니다. 산우회보를 e-메일로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기수, 성명, e-메일 주소를 (sk5793@hanmail.net)로 메일 발송하여 주시거나 휴대폰 문자메세지 (011-251-961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산장비 전문점-

노스페이스 중앙점

대표 조 홍 채 (64회)

H.P. 017-504-2277

- 중 앙 점 : 대구시 중구 동성로 2가 150-16 (대백⇄중앙파출소) / Tel. (053)255-5511
- 동성로점 : 대구시 중구 동성로 2가 40-10 (한일극장 건너편) / Tel. (053)421-4433 Fax.424-7361
- 구 미 점 : 구미시 원평2동 1008-33 (구미 국민은행 건너편) / Tel. (054)456-6900~1

계성산우회원 특별대우!!

